

# 베트남판 뉴라이트 비판

SalvadorAllende



나는 평소에 심심할 때,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이나 호주(한국에도 있음)로 도망친 남베트남 망명자들이 올린 보트피플 동영상 혹은 게시글 맛집 탐방을 한다. 보트피플들의 정치성향을 보면 거의 99%의 확률로 네오콘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를 홍보하는 이들의 정신나간 영상도 봤다.

이들이 올리는 영상이나 페이스북 글들을 보면 부정부패로 망해버린 남베트남을 회상하고, 미화하는 글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성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공산당이 통치하는 통일 베트남과 그 공산당을 창설한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Ho Chi Minh)에 대해 매우 혐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이 가진 반공주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남베트남을 옹호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 당시 본인들의 국도를 달의 표면으로 만든 미국을 찬양한다. 전쟁범죄인 무차별 폭격과 고엽제 투하도 '오폭 혹은 좌익소탕'으로 미화된다. 또한 이들은 미국의 반공주의적 혹은 식민주의적 정책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해가며 미화한다.

2019년 미국에서 사는 이들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가진적이 있다. 진성 반공주의자들인 이들은 남베트남 깃발을 들고 시위를 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두 인물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 행진했다. 두 인물은 바로 남베트남의 대통령이었던 응오딘지엠(Ngo Dinh Diem)과 응우옌반티에우(Nguyen Van Thieu)다. 참으로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본인들의 현대사마저도 반공주의를 위해선 마구잡이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 이유는 응우옌반티에우가 응오딘지엠을 암살하기 위한 즈영반민의 쿠데타에 참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티우는 응오딘지엠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미화한 적도 없다. 이런 현상은 정통성이 그만큼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역사적 사신마저 부정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뉴라이트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동시에 띄우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뉴라이트들이 그리도 찬양하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전혀 접점이 없는 인물이다. 군인이었던 박정희는 이승만을 매우 싫어했던 인물로 이승만 제거를 꿈꾸었던 인물이다. 또한 4.19혁명 이후 하와이로 도망친 이승만이 1965년 시체가 되어서야 귀국할 수 있었던 것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이승만의 귀국 요청을 막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정통성으로 보았을때 한국이 북한보다 밀린다. 그것은 양측의 친일과 청산을 보면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그것이 더 심하다. 왜냐하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시기 프랑스를 몰아낸 주체가 호치민과 그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당이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한국은 경제발전에 성공했지만, 남베트남은 응오딘지엠 시점부터 망해가던 나라였다. 따라서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점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다.

사실 정통성이 없어서 한국의 재벌 경제 발전 따위나 운운하는 뉴라이트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막장인 응오딘지엠과 응우옌반티에우를 동시에 찬양하는 이 보트피플들을 보면 더 한심함과 불쌍함을 느끼게 된다. 역시 괴뢰 추종자들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왜곡과 맥락무시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듯 하다.